

이 공 중 공인회 게시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 "재산관리와 중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감시대행 투자상담(Mutual Fund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ning) | IRA'S IRA Rollover
- 상속계획(Estate plan)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1, G.G, CA 92844



[注하し[14]

"이렇게 큰 계약을 따냈으니 모두들 놀라겠죠? 선배님."

"모두 깜짝 놀라게 하자고, 알았지?"

입사 5년째인 황 주임은 선배 김 과장과 기뻐하며 영업부에 들어섰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임님! 축하드려요."

"황 주임! 드디어 해냈구나!" 등 모두가 박수로 맞아 주며, 부장은 황 주임에게 악수까지 청했다.

"축하하네! 황 주임!"

"아니, 대부분 김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황 주임이 쑥스러워하며 말하자, 모두가 얼어붙었다. 부장님도 표정이 굳어지더니 김 과장에게 말했다.

"황 주임 부인이 결혼 5년 만에 첫 아기를 낳았다고 하네."

[장당바하마]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보러 아들 집에 갔다. 두 손자의 방에 들어서니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큰 너석은 컴퓨터에 관한 책을 읽고 있었다.

"커서 뭐가 되고 싶니?"

할아버지가 큰손자에게 물었다.

"컴퓨터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냐"

밀밀 웃음



할아버지는 작은손자에게도 물었다. "뭐가 되느냐보다 그저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 겠어요."

너석은 여성 잠지 최신호를 보고 있었다.

[불심이 깊은 닭]

한스님이 절 뒷마당에서 닭을 잡아 털을 뽑고 있었다. 지나가던 신도가 그 모습을 보더니 말했다. "아니, 절에서 닭을 잡다니……"

스님은 신도를 보고 말했다.

"닭이 얼마나 불심이 깊은지 삭발하고 중이 되겠 다고 해서·····"

[신부님과 스님]

신부님은 공항에서 작성하는 출국신고서 직업 란에 항상 '신부님' 이라고 적었다.

이번에도 그 신부님이 외국에 나가게 되었는데 역시 출국신고서 직업란에 '신부님' 이라고 적어 공항직원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그 공항직원이 약 간 샐쭉거리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신부님! 제가 지난번 출국하실 때도 뵈었는데 직업란에 신부님은 꼭 '신부님' 이라고 쓰시던데 그냥 '신부'라고 쓰시면 안 되나요?"

그러자 그 신부님,

"아니, 그러면 스님들은 '스' 라고 씁니까?"

[자성하고 오 1년 우시]

어느 날 정형외과에 환자 한 명이 찾아왔다. X선 촬영 결과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환자는 깁스를 한 후 의사에게 물었다.

"뼈 붙는 데는 사골 국물이 최고라는데, 그걸 먹으면 빨리 나을 수 있나요?"

그러자 의사가 짜증나는 듯 말했다.

"뼈 붙는데 사골이 최고면 내가 사골 끓이고 있지 왜 여기 나와 있겠습니까?"

(아들의 말투)

네 살 먹은 아들을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직장생 활을 하는 며느리가 집에 전화를 걸었다.

어린 아들이 전화를 받았다.

"오, 아들! 맘마 묵었나? 할머니는 뭐 하노?" "디비 잔다."

엄마는 아들의 말에 당황했다.

할머니가 어린 손자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 싶어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해 아들에게 할머니좀 바꿔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에이, 깨우면 지랄할 낀테······"

1321호 숫자퍼즐(이번호정답은 P45에 있습니다) 3 8 5 9 6 4 5 7 8 4 5 2 6 7 8 9 1 5 7 8 6 3 6 3 2 5 1 48



Candice K. Kim(김경아) 714-373-6883 7645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1

CA Insurance Agent #: 0B30329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 2019 Allstate Insurance Co.